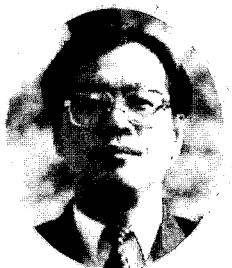


## 三國의 흥망과 京畿灣에서의 해양활동

### 들어가면서

우리는 바다와 조선산업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역사적으로 바다를 지배한 나라만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다'란 말을 즐겨 인용한다. 그리곤 李舜臣 장군이 거북배를 앞세워 숫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왜군선단을 무찔렀던 명랑대첩을 예로 들며 우리에게도 위대한 해양의 역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는 新羅하대 때 동중국해를 경영하였던 청해진 대사 張保皋의 위대한 업적<sup>1)</sup>을 상고하기도 한다. 장보고대사의 족적에 대하여는 그사이 재단법인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가 지속적으로 연구를 지원하여 출생에서 피살에 이르기까지 그의 인생역정이 비교적 소상하게 밝혀지게 되었다.<sup>2)</sup>

그러나 잠시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세계 조선산업 1위국 답지않게 해양 문화에 관한한 이 땅은 마냥 척박하기만 하다는 사실을 바로 인지하게 된다. 바다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필자는 오래토록 우리 역사에서 바다와 배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도 찬란한 해양의 문화가 있었다면 그것이 언제 어떻게 소멸되었는지를 알고자 고심하면서 접할 수 있는 제한된 자료들에 천착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동국대학교 윤명철교수의 발표<sup>3)</sup>를 감명 깊게 접하게 된 것을 계기로 지난 겨울에는 큰마음 먹고 우리의 史書들을 다시 뒤적이며 삼국시대의 해양활동을 새로운 시각으로 관조하였다. 마침 인하대학교 황해권운송시스템연구소의 이재욱소장께서 강연<sup>4)</sup>을 부탁하여 그 때 마련한 자료를 중심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음을 밝히며, 게으른 이 사람에게 자극을 주어 이 글을 쓰게 해준 두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최 항 순

· 1947년 5월 22일생  
· 1979년 원헌공대 박사  
· 현 재 :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 교수  
· 전 화 : 880-7329  
· E-mai : hschoi@plaza.snu.ac.kr

- 1) Reischauer, E.O., 「Ennin's Travels in T'ang China」, Ronald Press, New York, 1955.
- 2) 많은 연구보고서가 있으며, 일부 자료는 이 재단의 홈페이지 <http://www.changpogo.or.kr>에 올려져 있다.
- 3)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의 장보고연구회가 주관한 “해양활동으로 본 한국사” 발표회였는데, 그 뒤 「한민족의 해양활동과 동중국해」(학연문화사, 2002)로 출간되었다.
- 4) 「우리 역사와 바다 그리고 배-삼국시대 경기만을 중심으로-」란 제목으로 지난 4월9일 인하대학교에서 강연하였으나, 그 때는 원고를 미처 마련하지 못하였다.

## 삼국시대의 경기만

삼국시대란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新羅, 高句麗, 百濟가 각기 건국 초기의 부족국가적 틀에서 벗어나 고대 민족국가로서의 체제를 갖추기 시작한 때부터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하고 통일신라시대가 개막되기까지의 7세기에 걸친 시기를 말한다. 이 시기에 加耶가 존립하였으므로 三國時代로 불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여기서는 경기만이 주 관심지역이므로 그냥 삼국시대로 부른다. 경기만은 <그림>에 나타나 있듯이 인천과 한강하구를 중심으로 북쪽의 장산곶과 남쪽의 태안반도 사이에 있는 반원형의 만으로 해안선의 길이가 528km에 이른다. 물론 해안선이나 해양환경은 서서히 그러나 항상 변하기 때문에 2000년 전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술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는 현재의 상태에 근거하여 기술코자 한다<sup>5)</sup>. 북안의 장연반도에는 웅진, 청단, 연안 등의 여러 반도가 돌출해 있고, 그 사이에 해주만이 있다. 남안에는 남양만과 그 안쪽에 아산만이 만입하여 해안선의 출입이 복잡하다. 한편 연안에는 강화도를 비롯하여 영종도, 덕적군도, 용호도 등 여러 섬들이 산재하여 황해의 다도해를 이룬다. 경기만의 해양적 특징으로는 수심이 얕아 해안선에서 수십 km의 앞바다까지 수심이 50m 미만인 천해역이란 점이다<sup>6)</sup>. 또한 간만의 차가 심하여 인천앞바다의 경우 수직 높이

의 차이가 무려 9m에 이르며 조간대의 폭이 수 km에 이른다. 이에 덧붙여 섬이 많아 해류의 흐름이 매우 복잡하여 항해할 때 이렇게 복잡한 해류를 잘 알지 못하면 목적지까지의 이동이 어렵다.

## 백제의 선점

삼국 중 한강유역에 제일 먼저 자리 잡은 나라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백제이다<sup>7)</sup>. 백제건국에 대하여는 삼국사기<sup>8)</sup> 백제본기 권1에 기술되어 있는데, 같은 글에서 서로 다른 몇 가지 설을 제시하고 있어 혼란스럽다. 이 글의 목적은 삼국의 흥망이 경기만에 달렸었다는 사실을 입증코자 함에 있으므로 여기서는 沸流와 溫祚 형제가 남하한 경로에 국한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여러 說中 가장 믿을 만한 것은 두 형제가 어머니 召西奴를 모시고 烏干과 馬黎 등 신하 10명 그리고 적지 않은 수의 백성을 데리고 남하하여 負兒巖<sup>9)</sup>에 오르니 북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동으로는 높은 산이오 남으로는 넓은 기름진 들이며 西로는 큰 바다로 막힌 천혜의 장소이어서 온조는 10명의 신하와 함께 하남위례성에 도읍하였다. 그러나 비류는 바닷가에 도읍하기를 원하여 미추홀<sup>10)</sup>로 나아가 자리를 잡았으나 땅이 습하고 물이 짜서 결국은 망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삼국사기에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5) 해양학에서는 보통 한 세기에 걸친 변화의 결과를 의미한다. 따라서 20번의 변화가 있기 전의 상황은 지금과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자료가 없어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는 거시적 안목에서 대략적으로 추정할 따름이다.
- 6)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두산출판 BG, 2000.
- 7) 김성호씨는 최근에 그의 저서 「단군과 고구려가 죽어야 민족사가 산다」(월간조선사, 2002)에서 여러 가지 설득력있는 이유를 들며 기원전 57년에 박혁거세가 세운 나라는 지금의 경주가 아닌 경기도 고양이지만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온조에 의하여 꺾였다고 주장하였다. 이 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삼국초기에 경기만을 백제가 지배하였다는 이 글의 취지에는 어긋나지 않는다.
- 8) 윤희문화사가 출간한 이병도교수의 역주본을 인용하였다.
- 9) 이병도씨는 부아악을 삼각산으로 비정하였다. 밝은 날이면 삼각산에서 남산 넘어 멀리 지금의 강남 땅이 보이고 인천앞바다가 일부 보이기도 하지만 방위로 보아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 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경기도 광주에 있는 산으로 비정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광주에 있는 어떤 산에서도 서해가 보이지 않으므로 비류일행이 그 전에 서해를 거쳐 이 곳까지 왔다고 보아야 모든 것이 논리적으로 설명된다.
- 10) 지금의 아산만이란 주장도 있으나, 삼국사기에 당시의 仁州(지금의 인천)이라 주석되어 있다. 인천 남쪽에 위치한 문학산에 옛 성터가 남아있고, 또 부근의 우물이 옛날에는 비류정으로 불리었다고 전하고 있어 인천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遂與烏干馬黎等十臣南行，百姓從之者多 遂至漢山登負兒嶽 望可居之地 沸流欲居於海濱 十臣諫曰”惟此河南之地北帶漢水東據高岳南望沃澤西阻大海其天險地利難得之勢作都於斯不亦宜乎?” 沸流不聽分其民歸鄒忽以居之...”

이 글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부분은 마지막 줄에 있는 “비류는 이를 듣지 않고 그를 따르는 백성과 함께 추홀로 ‘歸’ 하여 살았다”란 대목이다. 한자사전을 찾아보면 ‘歸’는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이는 비류와 온조 일행이 미추홀을 거쳐 負兒嶽에 도달하였음을 시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쪽에 큰 바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삼국사기에는 이 기록에 이어 비류에 대하여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奉母氏南遊卜地別立國都遂與弟率黨類渡溟帶二水至彌鄒忽以居之...”

이는 어머니를 모시고 남으로 내려가 따로 나라를 세우려고 동생과 따르는 무리와 함께 예성강과 임진강을 넘어 미추홀에 도달하여 그 곳에서 살았던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위의 기록에 근거하면 비류일행은卒本을 배로 떠나 경기만에 들어와 예성강과 임진강 하구를 건너 미추홀에 도달한 다음 더 좋은 도읍지를 물색하러 한산의 부아악에 올랐는데, 온조와 대부분의 신하들은 경기도 광주벌이 마음에 들어 하남 위례성에 정착하였지만, 비류는 바다가 그리워 다시 미추홀로 돌아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그림>에 ①로 표시하였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배를 타고 경기만까지 올 수 있었으며, 비류는 왜 바닷가를 고집하였는지 궁금해진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三國誌」에서 찾을 수 있다. 삼국지 馬韓전에는 古朝鮮의 마지막 임금인 準은 衛滿에 나라를 뺏겨 좌우의 궁인만을 데리고 배로 남하하여 韓

지에 도달하였다 한다. 韓地가 어디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강화도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 즉, 졸본을 떠나 지금의 강화도에 도착하여 마니산에 올라 첨성단을 차려놓고 하늘에 제사지냈다는 것이다. 이때가 기원전 195년이므로 이로부터 177년이 지난 후 같은 해로를 따라 항해하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비정했던 내륙으로 남하는 그 가능성을 전적으로 지울 수는 없지만 혈혈단신도 아니고 따르는 많은 백성이 무리지어 당시 만해도 무시 못할 세력이었던 낙랑과 대방지역을 통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무래도 비류백제에 대하여 가장 많은 글을 남긴 김성호씨의 주장에서 차용해 와야 할 것 같다<sup>11)</sup>. 삼국사기에도 나타나 있듯이 비류의 아버지는 주몽이 아닌 優台<sup>12)</sup>로 그는 기원전 5세기에 句踐이 이끄는 越족에 쫓겨 요동까지 밀려 온 뒤틀족의 후예로 알려져 있다. 오족은 오래토록 양자강에서 살아 물길과 해운에 익숙한 키 작은 부족이다. 따라서 오족의 피를 받은 비류



<그림> 삼국시대 경기만에서의 활동로

11) 이에 관한 대표적인 책으로 「비류백제와 일본의 국가기원」(지문사, 1982)를 들 수 있다.

12) 台의 음독은 이와 같아 ‘이’로 읽는다.

는 내륙으로 들어 간 하남 위례성 보다는 바다에 접한 미추홀에 도읍하고자 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어쨌든 신라나 고구려보다 건국이 뒤진 백제지만 경기만을 먼저 차지하면서 고대국가의 체제를 갖춘 다음 중국 및 일본과 해상을 통하여 교류하면서 삼국 중 가장 먼저 번성하였는데, 이는 삼국 중 해양문화에 가장 친화적인 백제이어서 해양교류를 원활하게 했기 때문이라 분석할 수 있다.

### 고구려의 남하

고구려는 15대 미천왕이 즉위하면서(재위기간 300-331) 초기의 정국불안을 해소하고 진(晉)나라가 와해되는 국제적 격동기를 맞아 적극적인 대외 팽창책을 추진하였다. 즉위 초에 현도군과 요동을 공격하였고, 그 다음에는 남방으로 관심을 돌려 낙랑과 대방군을 병합하였다. 그러나 그를 이은 고국원왕은 평양성으로 쳐들어 온 백제 근초고왕의 군대와 싸우다 화살을 맞고 전사하니 고구려의 남하정책은 백제에 대한 원한을 품은 채 일단 접을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소수림왕은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하여 국력 신장에 주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고국양왕은 다시 적극적인 대외 활동을 전개하여 요동·현도의 두 군을 공략하고 남쪽으로는 386년 백제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그의 말년에는 후연에게 요동과 현도군을 다시 빼앗기고, 백제의 침공을 받는 등 공방전을 되풀이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왕위에 오른 광개토왕은 고국원왕의 원한을 갚기 위하여 일단 신라와는 화해하면서 백제의 가장 중요한 요충지인 경기만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였다. 즉, 왕위에 오른 첫해 음10월에 백제의 석현성(현 개풍군 청석동)과 관미성(현 강화도)을 점령하여 백제지역으로 남하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였다. 3년

후에는 패수(현재의 임진강) 입구에서 백제군 8천명을 사로잡아 부근의 여러 읍리를 고구려에 복속시켰다. 영락6년(396)에는 광개토왕이 친히 수군을 지휘하여 경기만을 급습함으로써 백제 아신왕의 항복과 함께 40개 성과 촌락 7백 개소를 취한 후 아신왕의 동생과 대신 등을 볼모로 잡았다. 광개토왕은 이에 머물지 않고 더욱 남하하여 지금의 조령까지 진출하는 등 백제를 심히 압박함으로써 백제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림>에 ②로 표시한 고구려 수군의 경기만 진격과 남하는 우리 역사상 첫 인천상륙작전에 비유되기도 한다<sup>13)</sup>

### 신라의 흥성

한편 소백산 동쪽에 갇혀 삼국 중 가장 약했던 신라는 법흥왕 때 국가체계를 정비하고, 진흥왕이 등극하면서 영토를 넓히기 시작하였다. 특히 왕14년(553)에는 백제가 차지하던 한강 유역의 요지를 점령하였고(<그림>에 ③번으로 표시하였음), 그 이듬해에는 백제의 군사를 격퇴하면서 성왕을 전사케 하였다. 그 후 신라의 국력은 더욱 강성해져 561년에는 600 여년 동안 명맥을 유지해오던 가야의 최후 세력인 大加耶를 평정하였다.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은 삼국통일에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즉, 신라는 그 때까지 육지로는 고구려에 막히고, 뱃길은 백제에 막혀 당나라와 직접 교류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한강 유역 경기만을 확보한 다음부터는 唐項城(지금의 당진)에 수군기지를 두어 방어를 공고히 하였고, 진평왕 5년(583)에는 우리의 역사 기록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선박제조 관청인 船付署<sup>14)</sup>를 설치하고 대감과 제감을 각각 1명씩 둬으로써 대외 교류를 위한 선박을 확보하는 행정체계를 갖추었다. 이러한 바탕에서 신라는 648년에 김춘추를 당나라에 파견

13) 윤명철, “신라하대의 해양활동연구-해양활동 및 대외항로를 중심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국사관논총 제 91집, 2000.

14) 위 문헌 8)의 권4 신라본기 진평왕 5년기

15) 여러 본의 삼국유사가 출판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최근 도서출판 까치에서 펴낸 북한과학원의 리상호가 번역한 「사진과 함께 읽는 삼국유사」(1999)를 인용하였다.

하여 당 태종으로부터 백제공격을 위한 군사지원을 약속 받았고(<그림>에 ④로 표시한 해로), 이 약속은 사실로 지켜져 660년 음6월엔 蘇定方이 군대를 배에 태워 당항성으로 들어와 무열왕의 아들 김법민의 수군과 합세하여 백제를 공략함으로써 드디어 백제를 멸망케 하였다.

## 나오면서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삼국의 흥망은 결국 누가 경기만을 지배했느냐에 달려 있었다. 이를 삼국의 건국신화<sup>15)</sup>와 연결하여 살펴보는 것도 흥미롭다. 백제를 건국한 비류와 온조의 아버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설이 있음을 위에 언급하였는데, 여기서는 일단 온조의 아버지는 주몽 그리고 비류의 아버지는 우이라 가정하자. 주몽은 고구려의 시조이므로 온조백제는 고구려와 같은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나, 비류백제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비류의 아버지 우이는 오족인 바, 원래 오족은 양자강에서 활동한 민족으로 동양 3국에 거주했던 부족 중 가장 해양적 바탕을 지니고 있었다. 초기의 백제가 삼국 중 가장 먼저 경기만을 차지하고 해양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발전할 수 있었음은 이러한 해양적 바탕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의 시조 주몽의 아버지는 잠시 혜성과 같이 나타났다 사라진 解慕漱이고, 어머니는 강물의 神 河伯의

딸인 柳花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주몽은 원래 해수로 고씨는 나중에 붙여진 것으로 보인다. 지역적 특성 때문인지 바다가 아닌 강이지만 어쨌든 고구려도 물과 관련이 있어 광개토왕이 경기만을 장악할 때 직접 수군을 통솔하여 남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왕통은 朴·昔·金 세가지 성씨인데<sup>16)</sup>, 바다와 관련된 성씨는 석씨뿐이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박씨의 시조 혁거세는 백마가 엮드려 절하던 보라 빛 알에서 태어났으며<sup>17)</sup>, 김씨의 시조인 알지는 始林속에 걸린 황금계좌에서 나타났으므로 물과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 다만 석씨의 시조 탈해왕은 김해가라를 거쳐 신라로 흘러들어 온 해양 세력임에 틀림없지만, 초기에 왕권을 차지하였을 뿐이다. 즉, 신라는 첫 김씨 왕인 미추왕 이래 대부분의 왕이 김씨여서 해양적이랄까 보다는 내륙적 색채가 강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삼국 중 가장 해양적인 백제가 초기에는 경기만을 장악하여 흥성하였으나, 경기만의 중요성을 인식한 강물의 나라 고구려가 남하함으로써 백제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가장 육지적인 신라가 뒤늦게 해양의 중요성을 깨닫고 경기만에 진출함으로써 삼국통일의 기반을 닦을 수 있었다. 이렇게 삼국 시대에 경기만을 지배한 나라가 흥성하였음을 보임으로써 “바다를 지배한 나라만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란 범세계적 관점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에서도 바다가 중요하였음을 강조하면서 이 글을 맺는다. ⚓

16) 김성호씨는 위의 세가지 성씨 외에 2대 남해차차웅과 3대 유리니사금이 韓씨 라고 주장하였다.

17) 백마와 보라빛 색깔에 근거하여 스키타이 계통의 기마족으로 비정하기도 한다.